

인천 · 경기지방 기간제 음악교과전담교사 출신 교사들의 초등학교에서의 교직생활

이 지 애*

본 연구는 기간제 음악교과전담 출신 교사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음악교사로서의 교직생활과 담임교사로서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교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간제 교과전담 출신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교직생활, 학교에서의 역할 등에 관한 설문지와 인터뷰 내용을 작성하여 실시한 후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그들은 초등학교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으며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음악적인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서 만족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음악교육, 교과전담교사

차 례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의 담임교사로의 발령절차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 연구도구 및 자료의 처리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의 분석
2. 인터뷰조사의 분석

V. 결론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나래초교 교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로운 교육은 기존의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즉 학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해찬, 1998). 1999년 교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조정한 정년교원정년의 단축은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의 심각한 교사부족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부에서는 1999년 4월 9일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라는 이름으로 음악, 영어, 체육, 미술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초등교사 모집 공고를 하였다. 그 후 1999년도 상반기에 서울 등 11개 시·도에서 3,800명을 선발하였고 1999년도 하반기에 추가 선발인원 2400명을 선발하였다(교육부, 1999). 그리하여 선발된 교사들에게 각각의 교과를 담당할 교과전담교사로서의 보수교육을 336시간(22학점 수준)을 받아 교과를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사부족현상은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의 선발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 기 채용된 교과전담교사에게 학급을 담당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672시간(45학점 수준)의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학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는 인천 경기지방에 총 920명이 선발되었으며 이들 중 음악교과전담교사는 인천40명, 경기136명이다. 이들은 각각 다른 분야의 전공분야를 가지고 중등학교 음악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부분 맡고 있어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선(1999)은 기간제 교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근무할 경우 초등학교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통합적인 생활교육 및 인성교육에 문제점이 있으며, 소규모 학교에서의 일반교과 담당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자기의 전공분야 이외의 타 교과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기존 교사와의 갈등 및 위화감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허병기(2002)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출신 교사들의 임용이 학교조직풍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교사간의 상호작용이나 협동, 그리고 교직사회의 개방성 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기간제 음악교과전담 출신 교사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음악전담교사로서의 교직생활과 담임교사로서의 교직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의 담임교사로의 발령절차*

1. 1999년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교육부는 먼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과 전담교사 자격 수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 자격 검정령을 개정하였다. 즉 1999년 3월 31일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된 교원자격 검정령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에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초등교과 전담교사 자격 연수 후 이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먼저 현재의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를 학급담임으로 전환하고, 보수교육 이수자를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임용(기간제 교사 임용)하되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단위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대학 계절제 편입 등을 통해서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되 보수교육기간 동안 이수한 내용은 학점으로 인정(21학점)하여 교육의 실효를 거두도록 하였다.

* 인천·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1> 교과전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및 연수실시 내용

선발시험		연수내용	
시험방법	전공시험 및 면접	교육시간	336시간(약 22학점)
제한연령	35-40세 이하	교육기간	1999.6-1999.8
모집인원	약 3,000명	교육내용	초등교과교육과정 및 교과지도법과 실기
대상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교사 자격증소지자 (부전공포함)	교육기관	교육감이 교육대학에 위탁
시험일시	1999.5.5	담당강사	교육대학교수, 초등학교 교원 및 장학사(관), 초등 교육해당 교과 전문가
합격자발표	1999.5.31		

2.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에서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기까지의 교육과정은 모두 5차례의 보수교육으로 이루어졌다(초등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보수교육안 내서, 2000).

<표 2>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보수교육 과정 및 기간 (인천교육대학교)

과정 구분	교육기간	총 교육시간	학점	교육주관기관
교과전담과정	1999.6.19.~1999.8.21.(60일)	336	22.4	인천교육대학교(연수원)
기본과정	1999.12.27.~2000.2.2.(29일)	195	13	인천교육대학교(연수원)
현장협동과정	2000.3.3~2000.7.5.(17주)	270	17.7	교과교육:지역별 실습학교 실기:인천교육대학교
발전과정	2000.7.7~2000.8.19.(35일)	290	15	인천교육대학교(연수원)
현장적응과정	2000.12.26.~2000.1.10(10일)	60	5.3	교육청

교과전담과정(1차), 기본과정(2차), 현장협동과정(3차), 발전과정(4차), 현장 적용과정(5차)으로 실시되었다. ‘교과전담과정’은 1999년 6월부터 1999년 8월 까지 336시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기본과정’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 까지 195시간 실시되었고, ‘현장협동과정’은 2000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70시간 실시되었으며, ‘발전과정’은 2000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290시간 실시되었고, ‘현장적용과정’은 2000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60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999년도 4월 9일 인천·경기 지방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고사에 응한 음악전공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출신 교사들을 대상(인천교사29명, 경기교사 32명, 총 61명)으로 질문지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중 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내용 구성

설문영역	설문내용		번호
I. 인적사항	기본적인 인적사항		*
	교육적 배경	대학교 때 전공	1-1)
		교직과정을 어디서 이수했는지 여부	1-2)
		대학원 졸업 여부	1-3)
	과거 교육 경험	중등에서 음악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	2-1)
		정식발령이후 음악전담교사를 했는지 여부	2-2)
		음악전담교사가 아닌 다른 전담교사를 했는지 여부	2-3)
	현재 교육 활동	현재 음악을 가르치는지 여부	3-1)
		담임교사인지 전담교사인지 여부	3-2)
		현재 맡은 업무	3-3)
		음악관련 교과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4)
		음악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지 여부	3-5)

<표 3> 의 계속

설문영역	설문내용		번호
II. 교직원 생활	발령 후 언제부터 담임교사를 맡았는지 여부		1
	초등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2
	초등교사로서 가장 좋은 점		3
	초등교사 담임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4
	학급담임교사와 음악전담교사를 희망하는 이유		5
	초등학교에 발령받고 가장 어려운 점		6
III. 학교에서의 역할	학급 경영	학부모들의 신뢰여부	1
		학부모 · 학생들과의 상담여부	2
		음악을 전공해서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3
		학급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4
III. 학교에서의 역할	교수 · 학습 지도	* 수업 관련	
		우리 반 학생들이 음악과목을 선호하는지 여부	5
		음악을 전공한 것이 학급분위기나 특색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6
		초등학생의 수준을 알 수 없어 수업하기 어려웠는지 여부	7
		초등교사 자격 연수가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8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내용이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9
		우리 학교 음악과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10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면 음악교과를 선택하는지 여부	11
		음악이외에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 여부	12
		다른 과목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13
		* 자격 관련	
		학부모들의 음악전공 담임교사에 대한 선입견 여부	14
		초등 담임교사 자격연수시간이 충분했는지 여부	15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적성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16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17
		다른 음악전담교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	18
		상위자격이나 학위를 갖추기 위한 노력	19
		초등교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각종연수에 참여하는지 여부	20
		중등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옮기겠는지의 여부	21

<표 3> 의 계속

설문 영역	설문내용	번호
Ⅲ. 학교에 서의 역할	* 음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음악 관련 업무의 만족도	22
	음악 관련 업무가 나에게 더 가치 있는지의 여부	23
	다른 업무도 배우고 싶은지의 여부	24
	담임업무이외에 음악 관련 일도 하고 있는지의 여부	25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인정받고 있는지의 여부	26
	학교 행사시 학생들을 지도하여 발표하고 있는지 여부	27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있는지 여부	28
	* 음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경우	
	맡고 있는 업무가 나에게 가치 있는지의 여부	22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인정받고 있는지의 여부	23
	학교 행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의 여부	24
	음악 관련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배우고 싶은지의 여부	25
	음악 관련 업무가 더 편한지의 여부	26
	음악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지 여부	27
	음악과 관련 없는 특활부서를 운영한 적이 있는지 여부	28

인터뷰의 내용은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초등학교에서 느끼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항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위주로 재구성하여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구성은 <표 4>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질문지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반응하게 하여 얻은 자료를 SPSS 10.0 을 이용한 빈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반응은 평균 점수가 4.0 이상인 항목과 두 지역간 평균점수가 0.5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 두 지역이 모두 높은 평균점수가 나온 문항과 두 지역 모두 낮게 나온 문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표 4> 인터뷰 내용 구성

번호	인터뷰 문항
1	현재 교직에 대한 만족도
2	초등에서의 생활과 *중등에서의 생활 비교
3	수업외적인 어려움
4	음악전공교사의 담임발령에 대한 의견
5	음악전담교사와 담임교사 근무의 비교
6	음악을 전공한 담임교사로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
7	현재 음악을 가르치는지 여부
8	음악교수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9	본인이 가장 잘 가르친다고 생각되는 부분
10	음악과 관련된 대회참가나 수상경력
11	발전하기 위한 연수나 상위자격취득을 위한 노력
12	학교에서 맡은 업무
13	중등전직 의향
14	교과전담제도에 대한 건의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의 분석

1) 교직생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출신 교사들은 정식발령 후 1년 이내에 담임교사를 맡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중 77%(43명)로 대부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담당업무(37.7%, 23명)와 학급경영(27.9%, 17명)을 언급했다. 초등교사로서 교직생활에서의 좋

은 점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보람(60.7%, 37명)과 안정된 직장생활(27.9%, 17명)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첫 발령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든다면 잡무부담(37.7%, 23명)과 여러 과목지도에 있어서의 어려움(29.5%, 18명), 그리고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어려움(23%, 14명)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담임교사를 희망(78.7%, 48명)하고 있었다.

2) 학교에서의 역할

응답자들은 학급경영에 있어서 학부모·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꾸준히 지도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음악을 전공한 교사라서 인성지도에 도움이 되며 학급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학교에서의 역할 중에서 학급 경영에 관한 다양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 학급경영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bar{X}$)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학부모들은 나를 신뢰한다.	19	31.1	38	62.3	4	6.6	0	0	0	0	4.25	0.57
학부모·학생들과 상담을 한다.	15	24.6	27	44.3	18	29.5	1	1.6	0	0	3.92	0.78
음악을 전공한 교사라서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도움이 된다.	23	37.7	23	37.7	14	23	1	1.6	0	0	4.11	0.82
학급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0	0	5	8.2	16	26.2	28	45.9	12	19	2.23	0.86

교수·학습 지도에 있어서 특히 수업에 관한 응답은 <표 6>과 같다.

<표 6> 수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bar{X}$)	표준 편차
	N	%	N	%	N	%	N	%	N	%		
우리 반 학생들은 음악과목을 선호 한다.	20	32.8	30	49.2	11	18.0	0	0	0	0	4.15	0.70
음악을 전공한 것이 학급분위기나 특색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된다.	27	44.3	28	45.9	4	6.6	2	3.3	0	0	4.31	0.74
초등학생의 수준을 알 수 없어 처 음에 수업하기 어려웠다.	1	1.6	15	24.6	20	32.8	21	34.4	4	6.6	2.80	0.95
초등학교 자격연수가 음악수업에 도움이 된다.	4	6.6	33	54.1	19	26.2	8	13.1	0	0	3.54	0.8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운 음악 관 련된 내용이 음악수업에 도움이 된 다.	21	34.4	25	41.0	12	19.7	2	3.3	1	1.6	4.03	0.91
우리 학교 음악과 수업 개선에 내 수업이 도움을 주었다.	10	16.4	21	34.4	25	41.0	5	8.2	0	0	3.59	0.86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면 음악교과 를 선택한다.	21	34.4	24	39.3	9	14.8	7	11.5	0	0	3.97	0.98
음악 외에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 는 과목이 있다.	9	14.8	33	54.1	16	26.2	3	4.9	0	0	3.79	0.76
다른 과목을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	1	1.6	7	11.5	32	52.5	19	31.1	2	3.3	2.77	0.76

설문내용으로 볼 때 기간제 교과전담 출신 교사들은 발령 후 담임으로서의 수업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한 것이 학급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령받은 학교에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적성과 자격, 실기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상위자격이나 초등교사로서의 자격을 더 잘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학교로 옮길 생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2.1%(44명)이 음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행사시 학생들을 지도하여 발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bar{X}=4.25$ 로 음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응답자는 ‘학교 행사시 학생들을 지도하며 발표한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bar{X}=4.05$ 로 음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응답자는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bar{X}=4.09$ 로 ‘음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응답자는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매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음악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bar{X}=3.71$ 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음악관련 업무가 더 가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음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bar{X}=3.75$ 인데 반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는 $\bar{X}=3.29$ 로 차이가 있었다.

클럽활동 및 상설특활부서운영에 있어서는 답변을 해석해 보면, 이들은 ‘클럽활동이나 상설특활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즐겁다’($\bar{X}=3.54$)고 생각하고 ‘학생들 또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bar{X}=3.64$)고 생각하며 ‘맡고 있는 부서의 연주능력이 매우 많이 향상되었다’($\bar{X}=4.03$)고 생각하고, ‘맡고 있는 부서를 훌륭하게 키워나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bar{X}=3.89$). 그렇지만 ‘학교에서 음악관련 업무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bar{X}=2.39$) 있어서 ‘클럽활동이나 상설특활부서의 연습시간과 장소 등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며’($\bar{X}=2.39$), 또한 음악 관련된 수상경력에 있어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3.9%에 달하지만 ‘음악관련 행사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bar{X}=2.48$). 그러한 반면 학교에서 음악전공교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bar{X}=4.00$), 그에 따라 경연대회의 참가 및 수상에 대한 부담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는 것($\bar{X}=4.03$)을 볼 수 있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체계에 있어서는 이들은 학교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음

을 볼 수 있고($\bar{X}=4.13$)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bar{X}=4.10$) 동료교사와도 잘 지내고 있으며($\bar{X}=4.30$) 학교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자문하고 있어($\bar{X}=4.15$) 학교에서 음악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bar{X}=4.25$), 음악에 관한 건의를 할 때 학교에서도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X}=3.72$). 이들의 동료교사와의 협력체계에 있어서의 평균점수를 볼 때 음악에 관한 협조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다른 문항에 있어서는 모두 $\bar{X}=4.0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서 이들의 동료교사와의 협력체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큰 것으로 보인다.

2. 인터뷰조사의 분석

1) 초등학교에서의 시작

처음에 발령받고 나서 생활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이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어려운 연수과정을 잘 마치고 교사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직생활에 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발령받을 당시 초등학교에서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탓에 수업외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았다.

“제가 학교 처음 갔을 때 아직도 그 첫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희 학교에 음악과하고 미술과 전담선생님이 갔어요, 그런데 한 부장선생님이 오셔서 교무실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왜 영어가 안 오고 음악 미술이 왔냐’고 하시면서 우리 둘을 얹어놓고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셔서 각오는 하고 왔지만 ‘이런 건가!’ 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업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초임 발령 난 교사들은 나이가 어리므로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 발령이 났던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들은 20

대 초반부터 4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들이므로 이중에서 초임이라고 보기에는 나이가 많은 교사들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들이 학교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다른 동료교사에게 질문하면서 배워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어떤 교사는 동료교사와의 어려움은 특별히 없었지만 업무를 배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잡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전담교사를 하면서의 어려움도 있다. 예를 들면 반마다 다니면서 수업하는데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교과전담교사에게 오고 또 학생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악역을 맡아야 하는 것이 또한 어려웠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 모두가 현재 교직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혹은 인정을 받는 직업이라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이라고 말하는 교사도 있다. 특히 이들은 음악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접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초등학교에 발령받고 초기에 이들을 바라보는 선입견 때문에 몹시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교사와의 협력체제와 수업외의 잡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2) 음악 전공 교사로서의 초등학교 근무

음악을 전공하였다고 하지만 중등학교의 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이고 각자의 전공분야가 다르고 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도에 있어 각자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과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를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창수업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국악 중에서도 국악기를 전공한 교사의 경우 가창수업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하여 대조를 보였고 성악을 전공한 교사 중 한 명은 처음에는 가창이 가장 쉽다고 느꼈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또한 가창이라고 이야기하여 가창분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다.

“처음에 음악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음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음악 수업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 느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도달 수준을 아주 낮추고, 게임 등의 흥미 있어 하는 내용을 다량 삽입했습니다.”

위 경우를 살펴보면 음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다. 음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을 음악을 즐겨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은 학교 음악 수업의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국악을 전공한 한 교사의 경우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보다는 골고루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국악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국악을 전공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지만 합창부 지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였다. 반면, 성악을 전공해서 가창분야만큼은 자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교사는 가창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렵다고 한다. 다음 교사는 가창부분은 자신 있지만 국악 쪽에서도 특히 단소지도에 있어서 어려웠다고 하였다.

“(중략)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이 단소를 불고 소리 내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수준 있는 단소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악 기악 쪽이 어려웠어요. 제가 좀더 많이 붙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자주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교사는 국악감상이나 단소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시간 안에 모두 다 가르치려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어 천천히 조금씩 연습하였고 한 학기가 끝날 때쯤은 어느 정도는 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교사는 처음 발령받았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중등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근무하다 와서 그런지 그런 혼란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끝에

현재는 수업에 있어서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였다.

수업이라는 것이 교사가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효과가 달라진다. 교사가 많이 준비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배우고 잘 따라한다. 그런 점에서 답변자들은 수업하기 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도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는 방법으로 준비한다고 하였다. 단소 같은 경우는 교사가 잘 연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서 틈틈이 연습한다고 한다.

위의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각각의 교사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또 그것이 상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격려이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목표에 따라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3. 음악을 전공한 담임교사로서의 근무

처음에 담임교사로서의 발령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의 담임교사로서의 근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결과적으로 요약해본다면 담임교사의 발령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담임교사와 전담교사 모두 좋은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하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담임교사의 근무는 필수 조건임을 보여 주었다.

“맨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는 기간제 음악교과 전담교사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담까지 하니까 정말 소속감 없고 걸도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위 교사의 경우는 동료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선뜻 물어 보기도 뭐하고 그랬는데 담임을 맡으니까 이야기할 발언권도 생기고 전담교사를 하면서 몇 반씩, 몇 학년에 걸쳐서 가르치는 것보다 수업이 좀 많더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한다.

“아침자습시간이나 재량학습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훨씬 더 음악적인 면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것 같고 학생들 표정이 음악교육을 통해서 더 밝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구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음악에 있어서 채워지는 부분이 많아서 담임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담임교사로 근무할 경우 단점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한다.

전담교사를 하면 학생들이 준비물의 준비가 어렵고 학습 분위기 차이가 심하며 학생들의 종합적인 변화상황을 알아볼 수 없으며 소속감이 없고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없으며 보결수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른 교사는 다른 이유로 담임교사를 희망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5년째 음악행사 업무만 하다보니까 학교업무로 주어지는 밝고 고운 노래 발표회나 그러한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연습이라든가 학생 관리 라든가의 측면에서 추진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요.”

반면 전담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도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진다.

“음악전담을 계속하는 쪽으로 희망을 합니다, 초등이라는 세계가 너무나 잡다한 업무들이 많고 그런 것들에 불만이 있구요, 담임보다는 전담을 했을 때 수업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더 만족스럽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싶고 저도 전문성을 더 많이 쌓고 싶습니다.”

위 교사는 본인이 담임교사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담임교사를 맡았을 경우 해야만 되는 잡다한 업무들(의자, 책상 수리와 같은)이 부담이 되어 전담교사를 했을 때 더 만족스럽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본인도 전문성을 더 많이 쌓을 수 있

어서 좋다고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분명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음악전담교사를 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이제는 어느 쪽의 근무가 좋은지의 문제가 아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담임교사를 할 때의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음악을 전공한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성지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교사가 많았는데 다음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꾸준히 음악 감상을 합니다. 또 다른 반 보다 확연하게 아름다운 가사의 동요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심성이 곱고, 얼굴이 밝고(아이답고), 감성이 풍부하여 동시 짓기도 아주 잘 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담임교사로 발령받았을 경우 1,2학년은 ‘즐거워 생활’ 통합교과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어서 담임교사가 모두 지도하게 되어 있지만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음악’이라는 과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음악전담교사가 담임교사의 반에 들어올 경우 음악을 전공했다라도 음악시간에는 음악전담교사에게 수업시간을 내어 주어야 하고 따라서 음악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 8명 중에서 3명이 현재 담임교사를 하고 있고 음악전담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1명은 현재 음악전담교사를 하고 있고 다른 2명은 1, 2학년을 맡고 있고 2명만이 담임교사를 하면서 현재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고 대답해서 생각보다 많은 음악전공 기간제 교과전담출신 교사들이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저는 지금 음악을 안 가르쳐요, 정말 이상했어요, 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전담을 할까 하다가 담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반에 음악전담 선생님이 따로 들어오시는 것이 정말 이상했어요.”

만약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위한 담임교

사의 음악활동과 음악시간에 음악수업을 위한 음악전담교사와의 음악활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우리 반 음악 전담선생님은 수업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꼭 가요를 들려줘서 10분 정도를 학생들과 신나게 부르고 끝내거든요,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음악적인 것을 공부하다가 랩을 신나게 부르고 끝나면...”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교사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야한다고 한다. 오히려 수업에 들어오는 음악전담교사의 시간이고 또 음악교육이 꼭 교과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시간만큼은 그 교사에게 재량권을 맡겨야한다고 한다.

위 내용을 살펴볼 때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음악을 못 가르치게 되는 것과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을 오히려 점점 등한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수업공개할 때면 꼭 음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괴리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해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음악만을 고집한다면 그것 또한 초등교사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므로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음악에의 노력과 담임교사를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 간에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4.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업무와 노력

음악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음악분야의 업무만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의 업무를 배워야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기간제 음악교과전담 출신교사라면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음악업무만 5년 내내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업무를 배워보고 싶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잘하기 때문에’ 음악관련 업무만 주신다고 대답하는 교사도 있고 음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도서관 업무와 학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차라리 음악 관련 일을 하면 좋겠다고 대답하는

교사도 있다. 또한 실제 업무는 따로 있고 음악 관련 일은 슬쩍 넘겨주시기 때문에 원래 업무와 음악업무를 같이 하려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담임교사를 하면서 음악관련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관련 공문은 모두 나에게로 옵니다. 오케스트라는 5년 연속 맡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서 방송업무, 학습준비물 업무도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음악과목으로 초빙교사 근무를 하게 된 어떤 교사는 5년째 음악 관련 일만하고 있어서 음악 관련 일 외에 다른 업무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장학을 받을 때는 현재 음악전담교사가 따로 있어서 음악수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교과 초빙교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준비하여 수업발표를 하라’고 하신다.

또한 음악전공 기간제 교과전담 출신 교사들의 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에서 음악과목의 심화과정을 밟고 음악에 관심이 많고 즐겨하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음악적인 기회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아래교사의 경우도 다른 분이 음악행사를 희망하였지만 아래교사의 발령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불만을 토로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음악행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발령받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제가 맡게 되어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 분은 어쨌건 저 때문에 희망업무를 못하게 되신 거니까요, 발령 후 지금까지 음악과 관련된 일만 했습니다. 다른 일도 좀 배워보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네요.”

다른 교사는 너무나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되어 힘들었다. 학교에 발령 받아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서관 업무를 주셔서 매우 당황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밝고 고운 노래발표회도 그 교사에게 준비하여 나가라고 하셨다. 또 다른 교사는 음악 업무 외 업무인 해양소년단 업무를 하는 등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많이 하였는데 밝고 고운 노래 발

표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윤리부에 담당자가 있지만 그 교사에게 넘어온다고 한다. 그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업무는 있고 그 외에 음악업무가 끼워져 오는 일이 많다. 똑같은 음악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타성에 젖는 것 같아서 다른 업무도 배워보고 싶어 하였다. 음악과 너무 상관이 없는 업무를 맡아서 힘들었던 교사는 오히려 음악업무를 하나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도 한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음악업무를 맡느냐 아니면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맡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맡은 업무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담임교사로 근무하기 위한 연수를 받은 이후 연수내용이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한계를 느낀다는 교사의 답변이 많았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연수와 상위자격을 취득하면서 해결하려는 교사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엿보였다. 답변자의 대부분이 방학마다 한 가지 이상의 연수를 받고 있고 대학원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8명중 3명을 제외하고 6명은 이미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진학하고 있는 경우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발령받은 또 다른 교사는 연수나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동호회 활동 같은 것으로 자꾸 연계시켜서 활동함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리코더 동호회 선생님들과 함께 3년째 리코더 연수를 주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그들의 노력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처음에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의 대상이었겠지만 이미 초등사회에 잘 적응하여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또는 본인의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간제 음악 교과전담교사로 처음에 발령받았으나 초등담임교사 부족으로 인하여 정식발령(2000.9.1)이후 1~2년 내에 대부분 담임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 스스로도 음악전담교사보다 담임교사로서의 근무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교과전담제도에 관한 언급을 할 때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담교사로 근무해야 한다고 답해 상충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감과 여건 등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담임교사를 맡지 않았을 때 느끼는 소속감 결여 등의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급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발령받아 동료교사와의 관계와 음악교과에 있어서도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지도, 그리고 타교과목 지도에 있어서 어려움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학급운영에 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음악을 전공한 것이 학급의 분위기나 학생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며 발령받은 학교에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적성과 자격, 실기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상위자격이나 초등교사로서의 자격을 더 잘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로 옮길 의향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업무에 있어서 음악 관련 업무를 하는 것에 큰 불만이 없으나 음악 외에 다른 업무도 하고 싶어 하였고 학교행사와 대외적인 행사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서 학교에 자문하는 등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인정받고 있었다. 현재 음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을 전공한 교사이므로 스스로도 음악업무를 하고 있을 때 더 인정받겠다고 생각하여 음악을 전공한 장점을 살려 일할 때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클럽활동이나 상설특활부서를 운영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며 부

서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음악관련 업무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장소나 연습시간 등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며 경연대회의 참가 및 수상에 대한 부담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관련 행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동료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으며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으며 음악적인 능력도 매우 인정받고 있어 만족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이들이 기간제 음악교과전담교사로서 발령을 받았으나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근무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음악을 전공한 교사로서 초등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음악분야에 더욱 많은 기회와 활동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과전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및 연수내용에 관한 교육부 담화문(1998)
- 김준호 (2000). 기간제 초등교과전담교사의 교직수행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김지희 (2004).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교육과정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
- 석문주 (1995). 2000년을 향한 중등 음악교사 교육 프로그램. 음악과 민족.9, 280-281.
- 석문주 (1995). 2000년을 향한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의 개선 연구. 연세음악연구. 3, 202-206.

인천 공립 중등교사 시험공고문 (2005).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2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보수교육 안내서 (2000). 인천: 경인교대 초등교원연수원.

최희선 외 (2000). 보수 교육 대상자의 초등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초등 교원 연수원

최희선 외 (1999). 기간제 초등교과전담교사 자격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초등 교사 자격부여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제언-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원연수원

허병기 외 (2002). 중초임용이 초등학교 조직풍토에 미친 영향. 초등교육연구.5, 497-513.

ABSTRACT

Teacher' s Professional Lives of the Temporary Music Subject-Dedicated Teachers in The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and Gyeonggi Area

Ji-A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teacher' s professional lives of the temporary music subject-dedicated teacher in the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and Gyeonggi Area.

The conclusions from result analysis were following.

First of all, they were initially appointed as temporary music subject teachers and most of them were appointed as classroom teachers within 1~2 years due to lack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also they prefer working as classroom teachers.

Secondly, at first they seems to have had difficultie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teachers, teaching music parts which were not their major, and teaching other subject, while they had no difficulty in managing classes.

Thirdly, it was observed that the fact that they majored in music had a big influence on atmosphere of the class and music preference of the students, and also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chools they are

working.

Fourthly, they thought that they were well equipped with aptitude, qualification and music performance ability to teach students and they were making constant efforts to equip with upgraded qualification as elementary teachers. Also they didn't have intention to transfer to middle school.

Fifthly, they wanted to undertake other duties except music while they didn't have serious complaint about conducting music related duty. Moreover, their performances including instructing students for various events and advising the school in terms of music were being greatly recognized.

Sixthly, they enjoyed club activities and running a special activity group and are confident of improving the group.

Seventhly, they are adapting themselves very well and trying to do it. Besides, their job satisfaction was very big because their abilities are recognized.

Keywords: teacher's professional lives, elementary school music teaching, elementary music teacher